

“추석 대목 바랐는데...” 소상공인의 눈물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회복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비대면 구매 여파로 매출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카드매출은 1년 전(9월9일~15일)에 비해 13.9%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60만여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정된 사업장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9000만원이다.

전남 매출 감소율은 22.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센 서울(-17.54%)과 인천(-19.31%), 경기(-16.53%), 부산(-11.66%)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에서 1년 전보다 매출이 더 오른 곳은 세종시(7.05%) 뿐이었다.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8월 마지막 주부터

광주·전남 9월7~13일 카드매출 현황

코로나 재확산·비대면 구매 여파 하락세 지속

전남 전년비 22.2% 감소...보성 40.13% 최고

광주 지난해보다 14.46% 떨어져...하락폭 커

매출 감소율이 전국에서 1~2번째에 들어왔다. 이달 둘째 주 매출은 전주보다 2.88% 줄었다.

전남 시·군별로 보면 보성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1년 전보다 40.13%나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높았다.

장흥(-39.9%), 강진(-37.46%), 담양(-35.94%), 구례(-35.01%), 완도(-31.86%), 순천(-30.16%) 등도 30%대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10% 아래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나주(-4.99%), 무안(-7.23%), 진도(-

9.07%) 등 3곳이었다.

전주보다 매출이 오른 곳은 광양(20.4%), 나주(14.05%), 순천(7.97%), 화순(2.95%), 무안(2.85%) 등 5개 지역 뿐이었다.

이달 둘째 주 광주지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14.46% 떨어져 전국 평균 감소세보다 심각했다.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서울·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감소율이 컸다.

광주 소상공인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데는 집밖에 나가지 않고 비대면(온라인)

형식으로 소비하는 행태가 대세를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광주도시설도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올해 1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광주지역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1903만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659만명) 보다 28.4%(756만명) 급감했다.

월별로 보면 '산전지밭' 확산이 질정에 달했던 3월 이용객 수가 41%(135만명)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용객 수는 1월(-4.7%), 2월(-17.3%), 3월(-41%), 4월(-36.9%), 5월(-29.5%), 6월(-17.3%), 7월(-37.6%), 8월(-34.6%) 매달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 1~13일 이용객 수도 전년보다 42.3%(-53만명) 줄어든 72만명에 그쳤다. 월 이용객 수가 200만명을 넘지 못한 달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심했던 3월(194만명)과 8월(197만명)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2.70 (-60.54) ↓ 금리(국고채 3년) 0.857 (-0.026)
↓ 코스닥 806.95 (-36.50) ↑ 환율(USD) 1172.70 (+8.30)

코스피 2% 하락...기관·외국인 순매도

코스피가 24일 2% 넘게 하락하며 23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54포인트(2.59%) 내린 227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7.62포인트(1.61%) 내린 2295.62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31일(2251.04) 이후 최저치다. 2300선 하회는 8월20일(2274.22) 이후 5주 만이다.

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8월20일(-86.32포인트,-3.66%) 이후 가장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50억원, 1544억원을 순매도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개인은 345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거래량은 7억267만주, 거래대금은 12조2741억원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6.50포인트(4.33%) 내린 806.95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중기 지원 개방형 화상회의실 설치 기관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비즈니스활동과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원시설 등에 개방형 화상회의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이며 공모를 통해 75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화상회의실 구축을 위한 장비와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에 대해 개소 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에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상시 개방해야 한다.

모집공고 및 지원신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위험시설 29일부터 저리 대출

PC방·노래방 등 최대 1천만원...유휴점·콜라텍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운영을 중단했던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태밍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유휴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하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 원 등 총 26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달 17일 기준 14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

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여수권 지사는 지난 23일 '광양 1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강공사' 현장에서 '청렴·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발주청인 여수권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현장 근로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착공한 광양 1단계 공업용수도 시설보강공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된다.

참석자들은 건설부문의 안전부패를 근절하고,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윤이수 여수권지사장은 "결의문에는 청렴을 저해하는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안전 소홀을 부패로 규정하는 등 청렴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담았다"며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31사단에 위문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24일 추석을 맞아 지역 향토부대인 제31향토보병사단(사단장 소영민)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월산 행복주택 30호 입주자 모집

LH 광주전남본부, 10월 19~28일 접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월산 행복주택 3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월산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

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 젊은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16·26·36㎡로, 16㎡형은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 26㎡형은 청년·고령자, 36㎡형은 신혼부부·기존거주자에게 주택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통해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

족은 10년, 주거안정이 필요한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다음달 19일부터 28일까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 등은 필요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26~27일 LH광주전남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하는 815 대출
- 3~9개월 동안 고금리 상환 기간에 한해 무이자 대출
- 다자녀 가구에 가구에 2억~4억 원의 대출 한도
- 50세 이상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대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흥지점), 573-4150 (양산지점), 528-4150 (운암지점), 513-4150 (운암산지점), 572-4150 (매곡지점), 576-4150 (첨단지점)